

## 중고등학생의 도자공예디자인 교육 연구

A study on the Ceramic design education for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이부연 (Lee, boo Yun)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응용미술교육학과 교수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도자공예 디자인표현의 발달단계**

**III. 중고등학생의 발달 특징**

**IV. 중고등학생의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중요성**

**V. 중고등학생의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방법**

**VI.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논문은 도자공예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로서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교육적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 연구는 그간 도자공예 전문가들에 의해서 학생의 표현단계나 발달심리에 관한 연구와 고려 없이 실시되어왔으며 어떠한 방향이 학생들의 교육에 적절한지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방이나 도예교실에서 혹은 미술 수업을 통해서 실시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변화되는 사춘기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 그 교육적 방법이 심도있게 연구되므로 중고등학생의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자공예디자인 수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도자공예디자인 수업은 아동의 연령이 매우 어린 시기에서부터 가능하다. 평균 만 2세에 시작하게되며 사춘기는 평균 만 13세에서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사이의 불균형에 따른 미숙함으로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 시각형과 비시각형의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주관이 뚜렷해진다. 이 시기의 중고등학생에게 도자공예디자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작품제작의 과정에서 일정한 규범을 갖는 긍정적 사회생활의 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중 스스로 집중력을 갖게되는 특수성이 있다.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게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대근육과 소근육발달이 이루어진다. 건강을 위한 웰빙활동이 될 수 있다. 학생의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다. 인지능력을 향상시킴으로 학생의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딱딱한 교과목을 쉽고 흥미롭게 학습해 갈 수 있는 기회로 타 교과목과의 통합교육이 시도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도자공예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가 계속됨으로 중고등학교의 미술수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Abstract

This study is for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ceramic design education. It is true that ceramic design education has been done by studio ceramists or art teachers in their studios or art classes without considering students' developmental stages.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are in adolescents stage. In this stage, students are struggling between physical and mental unbalance.

Special characteristic of visual and haptic phenomena are more clear in this stage.

For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ceramic design education offer chances to express their inner world freely.

Through processes of ceramic design education, students can learn that there are certain rules in the society and following rules are also important in their living. Students can learn how to concentrate their work by themselves.

Students can get self respect and self confidence by completing their works.

Students can get positive thinking for their future through ceramic design works.

Students can develop their muscles through ceramic design education. Ceramic design class also can be a kind of wellbeing activities. Students can develop their social skills. Students can develop their perceptions through ceramic design education.

Also intercurricular activities with so called hard and boring subjects and ceramic design education are possible for better understanding of subjects.

For the future, continuing studies of ceramic design education are needed for more qualitative art classes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and students' wholeness.

(keyword)

Ceramic design educatio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중고등학교 학생은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접어드는 미성년의 연령적 수준에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중고등학생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 연구는 발달단계 중 사춘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학생들의 표현 발달 단계와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교육을 실시함이 절실한 시기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등학생의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이 왜 중요하며 어떠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도자공예 디자인 표현의 발달단계를 논하고 중고등학생의 발달 특징을 고찰하며 중고등학생의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중요성을 연구하며 그들의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방법을 연구하여 결론으로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도자 공예 디자인 교육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II. 도자공예 디자인 표현의 발달단계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은 아동의 연령이 매우 어린 시기에서부터 가능하다. 평면 표현에 있어 연필을 쥐고 화면에 선을 긋기를 시작하는 연령을 평균 2세로 볼 때 입체표현인 도자공예 디자인의 표현도 2세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2세에 시작한 표현은 입체 표현으로서 처음에는 마구 두드리거나 납작하게 만드는 등 아동의 대근육을 이용해 작업을 시도하는 표현으로부터 시작한다. 3세 이상이 되면 점토를 손바닥에 놓고 둥근 원형을 만들거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점토를 말아 흠타래를 만드는 등 아동의 소근육을 활용한 작품 제작을 시도한다. 운동지각적 사고(Kinesthetic thinking)를 상상적 사고(Imaginative thinking)로 변화시킨다. 이 시기의 아동이 작업할 점토 덩어리는 두 손으로 쥘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 5세 이상이 되면 점토 형태를 제작하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다. 자동차, 사람 등 아동이 제작한 형태에 나름대로의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전도식기에 해당하는 5세에서 7세까

지의 아동은 머리와 다리를 붙여서 제작하는 머리와 다리 표현 (Head and Toe Representation)을 시도한다. 이 시기는 동기나 주제가 아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식기의 아동에게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의 특징으로는 분석적 방법 (Analytic method)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아동과 종합적 방법 (Synthetic method)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아동으로 대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아동은 점토 형태를 전체로 보고 점차 세부 표현으로 표현해 들어가는 표현 방법을 선호한다. 종합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아동은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세부를 각각 제작하여 분리된

형태들을 붙여나가는 방법을 선호한다. 또래 집단기의 아동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별이 점차 뚜렷해지며 점토 작업의 선호가 남 녀에서 차별화 되기도 한다. 자기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자기자신을 찾으려하며 표현대상을 점차 주변으로 넓혀가는 시기로 본다. 의사실기의 아동은 사춘기 아동의 특징인 자기 비판등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사실적 표현을 추구하나 본인의 미숙함을 감지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시각형과 비시각형의 특징이 구분되며 시각형은 형태를 변화시키는 표현에 관심을 가지며 비시각형은 주관적 경험을 표현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사춘기는 평균 13세에서 시작하며 이 시기에는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사이의 불균형에 따른 미숙함으로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 시각형과 비시각형의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주관이 뚜렷해 진다.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특징도 사춘기 아동의 개성을 파악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III. 중고등학생의 발달특징

중고등학생은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의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Hall은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며 신체적 변화와 성호르몬의 변화등 생물학적 요인으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Anderson은 ‘과도기’라고 하였으며 Charotte는 ‘제2의 반항기’ Lewin은 ‘주변인’또는 ‘경계인’으로 보았고 Schelsky는 ‘회의시대’라고 하였고

Hollingworth는 ‘심리적 이유기’라고 하였으며 Rousseau는 ‘제2의 탄생’이라고 칭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념과 가치관에서 심리적 불안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극단주의, 독립에 대한 열망, 정신분열증적 갈등과 반항, 동조와 복종등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의 확립과 혼동 사이에서 내면의 싸움이 계속되는 시기라고 본다. 미성숙과 무책임의 아동기에서 성숙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재의 자신과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의 문제의 핵심이다. 이 시기에는 자아의식과 독립심이 발달하여 부모나 기성세대에 대해 비판의식이 발달하며 독립적 인간관계가 가능한 교우나 동료 집단 관계를 중요시하게 된다. 이 시기에 독립적으로 성장하고자하는 자아가 성인들로부터 수용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거나 중고등학생 자신의 가치 및 이상과 맞지 않는 기성 세대의 가치 제도 관습을 강요당할 경우 이들은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로 이탈해 가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나 다른 한 편으로는 활동 영역이나 사회 경험의 반경이 좁고 능력이 부족하므로 기성세대에 의존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망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아이로 취급하면 화를 내지만 반대로 어른 취급을 하면 불안해 한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 영웅과 같은 인물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비합리적 집단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때의 지적 기능과 사고는 적극적이거나 현실성이 부족하며 추상적 관념적 이상적이다. 이 시기에 적절한 가치관과 규범을 갖지 못하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인간이 되고자하는 욕구와 자신만의 개성을 발전시키려는 욕구가 공존하므로 올바른 역할모델이 필요한 시기이며 올바른 교육이 중요시되는 시기이다.

### IV. 중고등학생의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중요성

중고등학생 시기의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은 두가지 측면의 교육이 가능하다. 한 면은 전문가를 양성하기위한 교육이며 또 다른 면의 교육은 일반인으로서의 교육이다.

전문가를 육성하기위한 교육은 재료의 특성, 도자공예

디자인의 조형성, 소성 등 전문인을 위한 기초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으나 일반인으로서의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은 중고등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도자공예에 쓰이는 점토는 미술 재료중 2차원 혹은 3차원 표현에 있어 가장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매체로 본다. 점토는 지구상의 어느 물체보다도 가소성이 높아 표현하고자하는 의도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물체로서 작품 제작 과정 중 그 형태를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 시 공간적 표현이 가능한 재료이다. 도자공예 디자인은 표현 과정 중에도 변형이 가능하며 시간적으로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 매체이다. 중고등학생의 다양한 사고와 창의적 발상을 작품으로 승화함으로 그들의 용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표현재료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미성숙과 무책임의 아동기에서 성숙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현재의 자신과의 갈등이 심하여 기성세대와 자신을 비판하는 그러나 사회경험이 좁고 능력이 부족하므로 기성세대에 의존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망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시기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표현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표현을 완성함으로 자신감을 형성함이 교육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표현이 필요한 이 시기의 중고등학생에게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을 실시함으로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도자공예 디자인의 제작과정은 적당한 습도유지와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한다든지 학생 각자가 작품제작의 일정한 규범을 지켜야하는 작업 과정 중에 이들의 개성표현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범을 갖는 긍정적 사회생활의 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자공예디자인 교육은 학생의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도자공예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 것을 표현에 옮겨 작품을 제작하기까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그러한 집중력은 외부의 요구나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중 스스로 집중력을 갖게되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집중력은 작품제작을 반복할수록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완성하므로 자존감(Self respect)과 자신감(Self Confidence)을 갖게 됨은 이 시기의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가장 큰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갈등의 시기인

이 시기에 작품제작을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성취하며 앞으로 미래에 관해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은 중고등학생들의 근육발달에 도움이 된다. 작품을 제작함으로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할 수 있다. 작품제작을 통해 자연스러운 육체적 움직임은 다양한 근육의 발달을 갖게된다. 도자공예디자인은 점토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점토가 인체에 유익한 물체로 점토를 이용한 다양한 건강 상품이 개발되고있는 현대생활에 웰빙 라이프의 침경이 될 수 있어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도 장려되어야 할 교육이다.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은 중고등학생들의 지적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학생이 제작하고자하는 구상이나 추상 표현을 통해 사물이나 개념을 관찰하거나 생각하게 함으로 지적 활동을 도울 수 있다. 도자공예 디자인 작품을 제작하면서 학생들의 내면의 세계를 작품제작을 통해 표현하므로 자신의 감성이 개발되고 순화될 수 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한 교실에서 작품제작을 하면서 사회성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학과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익함을 학생들에게 끼칠 수 있는 점이라 하겠다.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을 통해 갖을 수 있는 인지능력의 발달은 정상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장애를 갖은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육이 된다. 인지능력의 발달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될 수 있겠다.

## V. 중고등학생의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방법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자율적 학습과 창의성을 신장하기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을 추구하며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질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첫째,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둘째,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셋째,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넷째, 우리 문화에 대

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다섯째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기르는데 있다. 이러한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징에 따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미술이론과 표현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제 7차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영역으로 나뉘져 있다.

중고등학생의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은 제 7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수준별 심도있는 교육,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별 교육, 현장자율의 확대, 교육의 질 관리등의 방향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방법은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중요성에서 열거한 중고등학생의 다양한 발달을 위해 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겠다.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은 도자공예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기위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 방법이 개발 될 수 있겠으며 일반인이 될 중고등 학생들에게 개인의 다양한 발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겠다. 중고등학생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방법,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방법, 중고등학생의 내면의 세계 표출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방법, 중고등학생의 개성표현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방법, 학생의 개성표현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방법, 중고등학생의 긍정적태도 향상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방법, 중고등학생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방법, 중고등학생의 근육발달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방법, 중고등학생의 지적 발달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방법, 중고등학생의 감성 발달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방법, 중고등학생의 인지능력 발달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방법, 중고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방법, 중고등학생의 타교과목과의 통합교육을 통해 지식전달의 방법등이 개발될 수 있겠다. 앞서 열거한 다양한 도자공예 디자인의 교육 방법은 앞서 연구된 본인의 논문들에서 기술한 바 있어 본 장에서는 중고등학생의 도자공예 디자인의 교육방법으로 통합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교육은 미술이라는 특수하고 흥미로운 매체를 통해 딱딱한 일반 교과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역사가 오래 지 않아 미국의 경우 1920~194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 제 4차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개편에서 시도되기 시작 한 교육방법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실행된 교육 방법이다. 통합교육을 통해 지식을 통합적 안목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식의 생성력 즉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하며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에 부응하는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융통성있는 수업을 허용함으로써 수업의 밀도를 높일 수 있고 교육적 효과를 드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 볼 수 있다. APEID는 무의미한 교과교육 보다는 의미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의 심리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자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Ingram은 지식의 폭증현상의 대비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학습을 용이하게함과 인격 발달을 돕는 기능, 인간적 교류가능, 다학문적 접근의 가능, 학교와 사회의 연결의 필요성을 들었다. 미술을 중심으로한 통합교육은 미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다른 경험이나 활동과 통합하여 교육하였을 때 교육적 효과도 높이고 학습자에게 통합되고 본질적인 경험과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미술통합경험이 제공된다면 기초학습영역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시각적인 특성을 지닌 조형적인 작업은 학생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줄 뿐 만 아니라 학습효과를 높인다고 보았다. 도자공예 디자인과 타 교과와의 통합교육은 학생의 보다 원활한 학습을 위해 그 개발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보며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자칫 대학입시를 앞두고 주입식 교육에 경직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어렵고 딱딱한 교과목을 쉽고 흥미롭게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본다.

## VI. 결론

본 논문은 중고등학생의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중고등학생은 소위 말하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그들의 특징과 심리를 파악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등학생에게 적합한 도자공예 디자인교

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보다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 방향 제시를 시도하였다. 도자공예 디자인 표현의 발달은 아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2세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마구 두드리는 시기로서 대근육을 활용한 시기, 3세의 아동은 소근육을 활용하며 5세 이상이 되면 점토형태에 이름을 붙이는 시기, 5세~7세는 Head and toe representation의 시기, 7세 이상은 Analytic method와 Synthetic method를 활용하는 표현의 특징을 갖는 시기이다. 도래집단기에는 사실적 표현과 주변에 보다 넓은 관심을 가지며 의사실기의 아동은 자기 비판적 사고를 갖는다. 사춘기 아동은 더욱 갈등을 겪으며 개성을 표현한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특징은 청소년기에 갖는 사춘기적 특징을 들어내는데 질풍노도의 시기, 과도기, 제2의 반항기, 주변인, 경계인의 특징을 보이며 회의시대, 심리적 이유기, 제2의 탄생기등으로 칭해지는 시기이다. 중고등학교의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중요성으로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일반인을 위한 교육으로 대별 될 수 있겠으며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한 일반인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에 있어 그 중요성으로 도자공예 디자인의 재료인 점토의 가소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유로운 형태의 제작으로 학생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미성숙과 무책임의 사춘기 시기 인 학생들에게 작품제작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줄 수 있으며 내면의 세계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일정한 규범을 지켜야 하는 작업과정 중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집중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작품을 완성해 감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작고 큰 작품을 제작해 나가면서 학생의 소근육과 대근육이 발달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점토를 다루는 교과로서 건강에 유익한 물질을 접함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표현과 관찰을 요하는 작업을 통해 지적 활동을 도울 수 있으며 감성의 발달을 갖을 수 있다. 여러 학생들과 작업하면서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인지능력의 발달을 꾀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중고등학교의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방법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방법론 즉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수준별 심도있는 교육, 학생의 능력, 적

성, 진로별 교육, 현장자율의 확대, 교육의 질 관리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방법은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의 중요성에서 열거한 다양한 학생의 발달을 위한 도자공예 디자인교육 방법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됨으로 보다 바람직하게 실시될 수 있겠다. 앞서 열거한 도자공예 디자인 교육의 방법 외에 통합교육으로 도자공예 디자인교육과 타교과와의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통합교육은 한국의 경우 1982년 제 4차 교육과정에서 부터 실시된 교육의 형태로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에 부응하는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융통성있는 수업을 허용함으로 수업의 밀도를 높이고 교육적 효과를 드높일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로 앞으로 중고등학교 미술과 수업 도자공예디자인 수업의 방향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듯이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에 부응할 것이며 보다 심도있고 목적있는 수업으로 그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도자공예 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가 계속됨으로 중고등학교의 미술 수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뿐 만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참고문헌

- 1) 광병선(1984), 교육과정, 서울: 배영사
- 2) 김동영(1998), 미술중심의 초등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
- 3) 김재복(1983),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적용, 서울: 교학연구사
- 4) 김정외(1998), 미술교육학 원론, 서울: 예경사
- 5) 이규선외(1994), 미술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6) 이부연(2001), 점토를 매체로한 창의성을 위한 미술 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 서울디자인포럼 제 7호
- 7) 이부연(2001), 도자공예교육을 통한 육체적 성장을 위한 Curriculum 연구, 서울디자인포럼 특별호 2집
- 8) 이부연(2001), Synthetic method활용학생의 감정발달을 위한 도자공예 Curriculum개발에 관한 연구, 조형 교육 제 17집
- 9) 이부연(2002), 미적 성장을 위한 점토 미술교육 Curriculum 개발 연구, 한국미를 찾는 도자연구 제 1집
- 10) 이부연(2002), 사회적 성장을 위한 점토 미술교육 Curriculum 개발 연구, 한국미를 찾는 도자연구 제 1집
- 11) 이부연(2002) 아동의 인지적 발달을 위한 점토미술 교육 Curriculum 개발 연구, 조형 교육 제 19집
- 12) 이영덕(1991), 인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의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13) 전성수(2001), 사향미술교육논총 제 9집,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 14) Garth Clark(1997), 도예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이부연외 역),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국
- 15) Ingram, J.B.,(1979), Curriculum integration and lifelong education, New york: pergamon Press